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직업병, 추적부터 치료까지

어느 학교급식 노동자의 죽음

밥을 짓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조리실무사로 일한 김보연 씨(가명·사망 당시 54세)는 2018년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인생의 5분의 1을 급식실에서 보냈다. 거대한 솔과 짐통에서 뿜어내는 수증기 속엔 ‘조리흠(Cooking Fumes)’이라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죽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 그의 부고가 전해지고도 3년이 흐른 뒤에야 ‘업무상 질병’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보연 씨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이후 2022년 9월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은 79건,

승인 50건(승인율 63%), 불승인 7건, 진행 중 21건이다. 이미 사망한 학교급식 노동자 5명도 이 숫자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2023년 2월까지 전국 시도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 5명 중 1명꼴로 폐암 이상소견 진단이 나온 상태다.

직업성 암, 감시체계부터 달라져야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암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36.4명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중 ‘직업성 암’은 얼마나 될까? 정답은 알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한 사례는 2011년 50건에서 2021년 414건으로 10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유럽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다. 직업성 암 승인율을 보면 산재보험 가입자 10만 명당 독일 15.1명, 프랑스 11.39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8명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암 환자 중 4%를 직업성 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암 가운데 직업성 암이 0.1%뿐이다.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

전문가들은 직업성 암이 이토록 적은 이유를 직업성 암 감시체계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보통 우리 몸에서 암이 발견되면 직업성 요인보다는 가족력부터 찾아본다. 노동자는 물론 의사들도 그렇다. 암은 발암물질 노출과 발병 사이 기간이 길고, 노동자가 직업적 노출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기 힘들다. “직업성 암은 병원 진료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암 진단을 내릴 때 의사들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을 “무슨 일을 하느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병 안심센터, 생소함에서 친근함으로

직업병 안심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위탁 받은 전국 6개 권역 즉 서울, 중부(인천·경기·강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지역 거점 종합병원에서 운영한다. 자신의 질병이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 누구나 센터에서 직업환경 전문의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진료비나 검사비 상당 부분이 지원된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직업병 진단이나 치료보다 ‘지역 거점별 직업병 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한 노동자를

통해 직업병 감시체계가 작동되기도 하지만 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지역 거점(협력) 병원에서 직업병이 의심되는 내원 환자 사례 보고를 통해 직업병을 발견하는 체계다.

예컨대 호흡곤란을 일으켜 A병원에 실려 온 김성환 씨(가명) 사례를 보자. 흡연자인 그는 내원한 첫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를 진료한 의사가 직업을 확인한 결과 목제품 제조업체에서 40년째 근무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에 이 사례를 보고하고, 내원 2일 차에 협진을 통해 ‘제조업 나무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 소견을 받았다. 그는 병원을 찾은 지 일주일 만에 산재 신청까지 할 수 있었다. 호흡곤란 증상이, 폐질환이 김성환 씨 개인의 불행한 일로 끝났더라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불행을 겪고 홀로 견뎌내야 했을 것이다.

2023년 4월이면 직업병 안심센터 1호점이 문을 연 지 1년이 된다. 하지만 지금도 직업병 안심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노동자가 많다. 사실 고용노동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도 이곳은 생소하다. 그만큼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암센터’ 만큼 직업병 안심센터가 국민에게 친근한 이름이 될 때 직업병의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이다. ☺